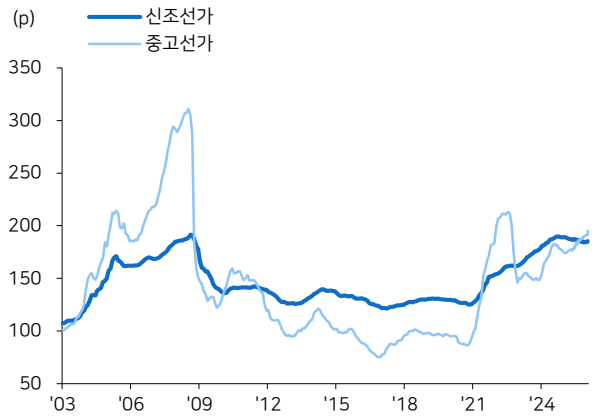
2026. 1. 27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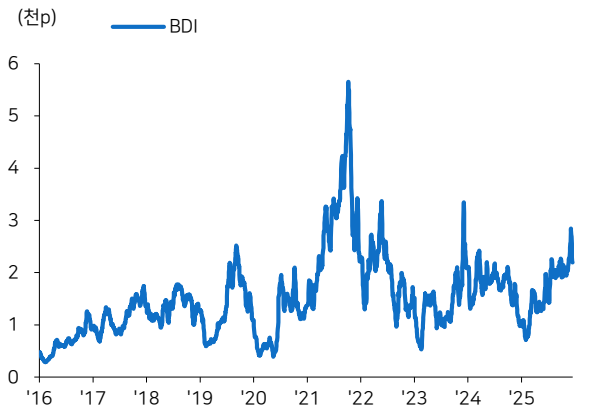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8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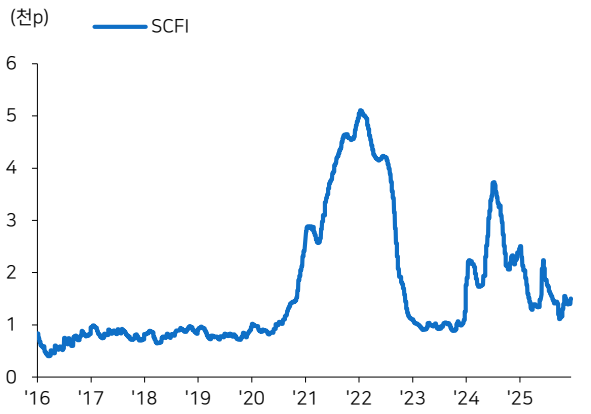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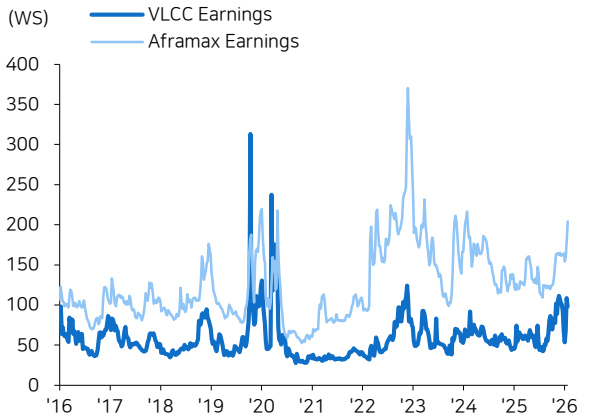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62.0p (-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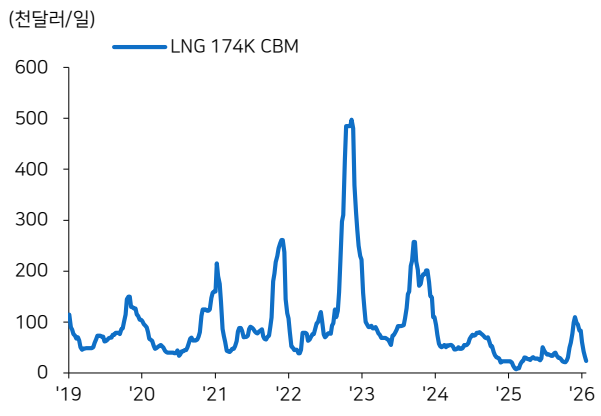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7.9p (-116.3p WoW)



VLCC Spot Rate 98.4WS (-10.1p WoW)



LNG Spot 운임 23.5천달러 (-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의선 회장, 캐나다 특사단 합류...잠수함 수주 지원 — **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정부 특사단에 합류해 캐나다를 방문하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전해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26일 오전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 · 중형선사업부 사장 등이 이번 특사단에 함께할 예정으로 보도됨. CPSP 사업은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캐나다 국책 사업으로, 캐나다 측은 최대 30년 간의 MRO 등을 위해 자국 내에 MRO 인프라 구축 등을 원한다고 알려짐. (https://buly.kr/HSYlSCB)

"주식보상 지급하라"...한화오션 노조 2600 명 대규모 소송 — **SBS Biz**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약 2,600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미지급을 문제 삼아 부산지방법원에 미지급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됨. 해당 분쟁은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노조와 2023년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RSU 300% 지급에 합의했으나, 2024년 2월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화오션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고 전해짐. 법원은 소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보정 권고를 내린 상태이며, 한화오션은 지급 조건 미충족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1cAZAyn)

8 조 KDDX 사업... HD 현대·한화오션 '승자독식' 로드맵 첫 공개 — **뉴스핌**

방위사업청이 2026년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7월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별 일정안을 제시했으며, 2026~2032년 약 8,821억원을 투입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1척을 국내 건조한다고 전해짐. 경쟁입찰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가운데 한 곳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권을 확보하게 되며, 보안 · ESG · 협력사 상생 지표까지 포함한 평가에서 소수점 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보도됨. 방위사업청은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2026년 상반기 입찰을 거쳐 연내 계약 일정안을 제시했으며, 두 사업 모두 2026년 상반기 공고를 기점으로 연내 사업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으로 알려짐. (https://buly.kr/EopOso1)

EU signs off on Russian gas ban — **Upstream**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속에 따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를 내년 가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됨.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3% 미만으로 낮췄으나 가스는 여전히 약 13%를 차지해 에너지 안보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산 LNG 의존 확대 역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EU와 영국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가스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9MRuTGB)

First LNG carrier of 2026 sold for demolition — **TradeWinds**

선주사 Seapeak이 2004년 건조된 증기터빈 LNG 운반선 Seapeak Mars를 인도 해체용으로 매각하며 2026년 LNG 운반선 부문 첫 해체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해짐. 22년 선령의 29,685ldt 선박에 대해 ldt당 412달러의 가격이 책정됐으며, 거래 금액은 약 1,220만달러 상회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짐. 증기터빈 LNG선의 비효율성과 용선 수요 감소가 해체를 가속하고 있으며, 2025년 LNG 운반선 해체는 15척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6년에도 신조 인도 급증 속에 15~20척 추가 해체가 예상된다고 보도됨. (https://buly.kr/BTR0F81)

Russia's first home-grown LNG carrier loads at Arctic LNG 2 — **TradeWinds**

러시아에서 건조된 첫 Arc7급 LNG 운반선 Alexey Kosygin이 북극항로를 거쳐 Novatek의 Arctic LNG 2 플랜트에 도착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서방 제재로 인한 외국 업체 철수로 인도 지연을 겪었으며, 향후 Arctic LNG 2 화물 선적에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짐. 러시아는 Arctic LNG 2용 Arc7 쇄빙 LNG 운반선 21척 계획의 일부로 Zvezda에서 신조 2척 추가 인도를 추진하고 있고, 한편 Zvezda는 제재로 삼성중공업과의 건조 협력이 중단됐으며 신조 6척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계류된 상태로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6Mt1fAP)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